

# '맛의 도시' 목포서 국제남도음식문화큰잔치 열린다

### 27일부터 3일간... 음식명인 푸드쇼·스타셰프 다이닝 등 풍성

제30회 국제남도음식문화큰잔치가 오는 27일부터 3일간 목포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다. 올해 30주년을 맞아 국기와 세대를 초월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이 중 남도 명인 푸드쇼에 선 남도 음식명인의 음식을 30주년 기념으로 3000원에 맛볼 수 있다. 27일 오전 10시 김봉화 명인의 집장, 낮 12시 김영숙 명인의 양금절편, 28일 오후 1시 최윤자 명인의 모시잎떡, 오후 3시 임화자 명인의 육포, 29일 낮 12시 천수봉 명인의 흥어무침을 선보인다.

22개 시군에서는 시군 대표 음식을 관람객이 직접 맛보고 현장 스티커 투표를 통해 인기 음식도 선정하도록 할 예정이다.

시간대별로 특산물 시식 이벤트도 진행돼 다양한 전남의 농특산물을 맛보며 행사를 즐길 수 있다. 시식 특산물은 나주 배 식혜(일 210잔), 담양

유과(일 100개), 고흥 오란다(일 2000개), 무안 고구마말랭이(일 100개) 등이다.

요리 인플루언서 쿠키쇼도 현장 라이브로 진행된다. 28일 오후 3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주무대에서 수요미식화로 유명한 홍신애의 김치클래스, 27일 오후 1시부터 1시간 동안 주무대에서 중국요리의 대가 여경숙(Chef Lu)의 남도 자장면을 시연하고 30명에게 특별 시식 기회를 준다.

30주년 기념 글로벌 미식존도 운영한다. 남도음식의 글로벌 콘텐트화를 위해 미술생 1스타 니시무라 셰프 등 유명 셰프들이 남도 식재료를 활용해 담섬(정지선 셰프), 바비큐 닭발(남준영 셰프), 라멘(니시무라 다카히도 셰프), 빼에야(오세득 셰프) 등을 만들어 선보인다.

또 반올림피자와 협업해 전남 특산품인 '고흥 유자, 영암 무화과'로 개발한 '남도 1호 피자'를 축제

기간 매일 1800여 명에게 무료 시식 기회를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오세득 셰프의 남도음식 다이닝이 28일 남도음식체험관에서 운영된다. 1회차 점심은 남도음식 관련 사연을 사전에 공모받아 선정자에게 무료로 다이닝을 대접한다.

행사 마지막 날인 29일 남도 식재료를 활용한 남도김밥 요리경연대회가 열린다. 대상 수상작 레시피는 프랜차이즈사나 편의점과 협업해 대중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개막식 축하공연은 27일 오후 7시 멀티미디어 불꽃쇼를 시작으로 이찬원, 하이기, 박구윤, 이젤 등이 무대에 오른다. 28일 오후 7시에는 '정선희·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시대' 공개방송이 목포문화예술회관 주무대에서 진행된다. 조대가수로 신유, 소찬휘, 현진영, 정다경, 전중혁 등이 출연해 관객의 눈과 귀를 사로잡을 예정이다.

/윤현석 기자 chadoi@kwangju.co.kr



전남도의 '화순군 정책비전 투어' 행사가 24일 영암로 전남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화순군청 회의실에서 열렸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광주시, 공실 넘치는 상업지역 비주거 의무비율 완화

### 15%→10% 축소...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상가 공실 증가에 따른 공동화 확산 방지·경기침체 극복 기대

광주시가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를 관리하는 용도용적제에 대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용도용적제는 상업지역 내 건축물 용도에 따라 용적률 등을 차등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광주시는 24일 "상업지역 주거복합건축물의 주거용도 의무비율을 '15%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광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사회문제로 치닫고 있는 상가 공실로 인한 지

역사회 공동화 현상을 막고, 지역경기 활성화에 유도하기 위해 다른 비수도권 광역시(대전, 대구, 부산, 울산)와 같은 수준의 용도용적제 완화 필요성에 따라 조례개정을 추진하게 됐다. 이는 광주시의 설명이다.

현행 '도시계획조례' 제72조 제5항은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에 적용되는 주거용도 의무비율을 15% 이상으로 하고, 주거용적률(준주택·생활숙박시설 포함)은 400% 이하의 범위

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광주시는 경기침체와 상가 공실에 따

른 공동화 현상이 심각해짐에 따라 상업지역 용도용적제의 유연한 운영을 위해 지난해 9월 기초 조사를 실시한 데 이어 지난해 12월 강기정 시장 주재의 원외대화를 통한 학계 의견을 청취했다. 또 올해 5월 '2024년 광주시 도시계획포럼'과 전문가 자문, 관련 단체 의견 수렴 등 1년여의 검토 끝에 조례 개정안을 마련했다.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은 상업지역 주거복합건축물의 주거용도 의무비율을 현행 '15%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완화하는 것이다.

개정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는 오는 10월 14일까지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관계기관 및 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검토한 후 관련 절차를 거쳐 광주시의회에 조례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전남도, 22개 시·군 대상 정책비전투어

### 화순 미래 발전 7대 비전 제시

김영록 전남지사가 24일 화순군을 시작으로 하반기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비전투어에 나섰다.

전남도가 지난해까지 진행한 '도민과의 대화'를 업그레이드한 정책비전투어는 전남연구원과 지역의 잠재력과 역량을 바탕으로 한 지역 맞춤형 미래비전을 마련해 지역민에게 제안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김 지사는 이날 화순군에서 열린 비전투어에서 "광주를 비롯해 도내 7개 시군과 접한 사통팔달 교통의 요충지로, 문화·관광 등 뛰어난 자원과 잠재력을 바탕으로 최근 여러 성과를 내며 '살기 좋

고, 살고 싶은 도시'로 급부상하고 있다"며 화순의 미래 지역발전을 위한 7대 비전을 제시했다.

화순 7대 비전은 ▲글로벌 첨단과의 클러스터 본격화 ▲관광지역 신산업의 새로운 전기 ▲고인들 국가정원 명소화 ▲도곡온천 레저·치유명소로 재탄생 ▲메디푸드·스마트 농축산업 전진기지 ▲반려 동식물 혁신 거점화 ▲화순발전 대동맥, 광역도시권 연계 SOC 등이다.

구복규 군수는 "군민의 휴식공간인 남산공원에 빛·꽃·문화·예술이 어우러진 특색있는 지역의 고유성을 담은 야간경관 특화공간을 조성해 관광활성화를 추진하고자 한다"며 전남도 지원을 요청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 순천시 부적절 업무행태 무더기 적발

### 전남도, 97건 위법·부당사례 지적

순천시가 주거취약계층을 위해 LH를 통해 4년간 추진해오던 행복주택 사업을 일방적으로 취소했다가 전남도 감사에서 적발됐다. 고발·수사의뢰와 100명이 넘는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후계 요구는 전례가 없었다는 게 전남도 설명이다.

또 쓰레기 종량제 봉투 공급 대행 업무 추진 과정의 부실 행위로 판매대금 체납, 공급 유용 방지 등의 사태가 빚어지는가 하면,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관리 업무를 위탁하면서 시민들에게 근거 없는 수수료를 받는 위탁업체의 행태에 대한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24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순천시에 대한 정기 종합감사를 벌인 결과, 97건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 119명에 대해서는 신분상 조치(징계-후계)를 요구하는 한편, 106억 400만원에 대한 회수·부과추징-감액 등의 조치를 요구했다.

전남도는 지난 2020년 11월부터 2024년 5월까지 최근 3년 간 순천시 본청과 직속 기관·사업소, 읍·면·동, 순천만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해 부적절한 업무 행태를 적발해 시정을 요구했다.

우선, 순천시는 지난 2011년부터 현재까지 쓰레기 종량제봉투 공급 대행 업무를 위탁업체 모집공고도 없이 수의계약하는 방식으로 14년 간 특정 조합을 대행사업자로 선정, 운영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조합 측은 이 과정에서 판매대금 47억원을 체납했는데도, 순천시는 관련 협약을 체결하지 않

아 배상책임 요청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원박람회장 내 선박(정원드림호) 운영업체 선정 과정에서 평가 점수를 잘못 집계하는 바람에 2순위 업체와 계약을 하는가 하면, 허위실적증명서를 낸 업체를 e스포츠 페스티벌 운영 업체로 선정할 잘못도 드러났다.

순천시가 LH와 협약을 맺고 조곡지구 행복주택 조성사업을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추진하다가 일방적으로 취소, 변경한 데 따른 행정의 난맥상도 지적됐다.

순천시는 당시 청년층과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140세대가 들어설 수 있는 임대아파트 조성 사업을 취소하고 반려동물 놀이터로 조성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했다. LH가 설계공모비로 쓴 2억 원과 입주 희망자들의 기대, 4년 간의 행정력을 낭비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는 게 전남도 설명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 광주시, 영산강 상류에 생태습지 조성

###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광주시가 영산강 수질 정화를 위한 생태습지 조성 사업을 본격화한다.

광주시는 24일 청사에서 '영산강 수질정화 생태습지 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발표한 '영산강 100리길 Y-프로젝트' 기본계획의 일환으로 습지·수질관리·수자원 전문가, 한국농어촌공사, 국립생태원 관계자들과 함께 생태습지 조성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영산강 수질정화 생태습지 조성 사업은 영산강 상류의 비점오염원(지표면에서 빗물 등으로 운반되는 오염물질) 저감을 통해 수질을 개선하고 생물 다양성을 촉진해 하천을 생태공원이나 생태학습장으로 만드는 사업이다.

여기에 하루 10만L의 하상여과수를 취수해 가뭄 때는 식수로, 평상시에는 하천 유지용수로 활용하는 '영산강 맑은 물 순환형 공급체계 구축사업'과 연계해 영산강 수질을 2등급으로 개선해 나가는 시너지(동반상승) 효과도 노리고 있다.

이번 용역 조사는 내년 6월까지 영산강 상류부에 습지를 조성하고 수질 개선안을 강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광주시는 이날 보고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반영해 사업대상지의 수질과 습지 용량 결정 등 정밀 조사를 하고 최적의 생태습지 모델을 제시할 예정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영산강 용역 비점오염원 저감을 통해 수질을 개선하고 시민들이 자주 찾는 생태관광명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240326-중-166833호] [광고]

## 허리 통증이 심할때는

# 첨단우리병원

### 허리 디스크 협착증

미세현미경 수술  
척추 내시경 수술  
고주파 수핵 감압술  
척추 유합술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970-6000  
광주과학기술원 / 호수공원 앞

## 신협이 활짝 피었습니다

든든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당신을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평생 어부바  
**신협**